여야 '강대강' 대치 전운고조…민주 '원샷특검' 요구

특검 도입-법안·예산안 연계 시사 對與 압박 강화

새누리 "신야권연대는 정치적 야합…단독국회 불사"

민주당이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와 관련, 국회 의사일정을 한때 거부하고 장외집회를 여는 등 대여투쟁 기조를 다시 강화하고 나서는 한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원샷 특검'을 연결고리로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범야권 연대를 추진하면서 정국에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새누리당도 전국공무원노조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는 동시에 '민주당=정쟁 유발세력'이란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여론전을 한층 강화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의 대치 정국은 이번 주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선 오는 18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거부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지도부도 특검 도입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 있다는 방침까지 시사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당이 실제 특검 도입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한다면,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면서 '불임 국회'로 전락하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전반에 대한 '원샷특검' 카드를 내세우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섰던 민주당은 일단 11일부터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11~12일 황찬현 감사원장,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있는데다, 국회 일정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앞으로 원내에서 '원샷특검'과 국정원개혁특위 설치를 위한 총력전을 펴는 한편 오는 12일 출범하는 범야권 공동기구 활동을 지렛대로 장외동력을 살려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8월1일 원내외 병행투쟁을 내세워 거리로 나선 지 101일만인 10일 서울광장의 천막당사를 접었다.

특검의 경우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 정의당이 환영의 뜻을 밝혀 야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예산·법안 처리와 연계 문제를 놓고는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이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국회는 국민의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떤 이유로도 정치가 그 임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특검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국회 일정을 미루거나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한 때문이다.

특검 및 국정원 개혁 공조 과정에서 자칫 안 의원과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여당 단독의 국회 운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특검 도입을 고리로 한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의 '신(新)야권연대' 움직임을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야권연대라는 미명 아래 이석기 등 종북주의자들을 국회에 끌어들이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신야권연대 운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제발 홀로 서는 능력을 키우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험로가 예상되는 각종 법률안 심사 및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9차 국민 결의대회'에서 '민주회복'과 '국정원개혁'글자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의원 '연석회의' 참여 '신야권연대' 연결고리 될까

원로모임 '국민동행'도 17일 출범

오는 12일 출범하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대응 범야권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참여키로 함에 따라 향후 야권연대의 범위와 정치적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연석회의는 작년 야권의 대선 패배 이후 태동하는 첫 야권연대의 틀이라는 점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사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안 의원 측은 10일 "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이 함께하는 범야권 연석회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이를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가 꿈꾸는 나라' 등 연석회의 주최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2일 연석회의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정의당 천호선 대표, 안 의원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각계 원로와 대표자 70여명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 의원은 독자세력화 추진을 공식화한 뒤 "후보 단일화나 야권연대는 없다"는 입장을 공언해 왔다. 이런 점에서 안 의원의 연석회의 참여가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변화가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연석회의는 당장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공동대응하기 위한 기구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향후 '민주당+안철수+정의당'을 아우르는 이른바 '신(新)야권연대'로 가는 디딤돌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안 의원 측은 이번 연석회의 참여를 포괄적 야권연대나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연대'의 전초적 단계로 비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사안별로 시민단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야권이 뭉쳐서 모든 사안에 같이 대응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도 지난 7일 연석회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사안별 연대'에 의미를 뒀다.

한편, 연석회의와 별개로 80년대 '민추협' 멤버인 동교동, 상도동 일부 인사들과 재야인사 등 원로그룹도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출범(17일)을 위한 대국민제안문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야권 재편 과정에서 그 역할이 관심을 모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영록·황주홍, 한농연 선정 '국감 우수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사진 왼쪽)·황주홍(장흥·강진·영암)의원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에서 뽑은 '201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농연은 "올해 국감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성실도, 정책제안의 참신성, 농업인 단체 의견 반영도, 피감기관 긴장도, 질의의 충실성 등을 토대로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본산 수산물 오염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을 쟁점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쌀 직불금 인상 공약 파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정책금리 인하와 쌀값 지지를 위해 벼 매입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눈에 띄는 활약으로 농민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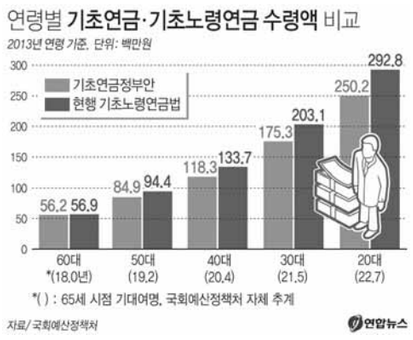
정부 기초연금안, 20세에 적용해보니

수령액 4260만원 줄어들듯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현재의 20세에 적용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 체계에 비해 4260만원 가량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30세인 청년은 현행 체계에 비해 2782만1000원, 40세는 1541만4000원, 50세는 946만7000원씩 각각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의뢰로 기초연금 정부안의 예상수령액을 추계한 결과, 올 현재 만 20세(1993년생) 청년이 기대여명까지 생존한다면 65세부터 23년간 2억5019만7000원(불변가격 기준)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대여명'이란 각 연령별로 남아 있는 수명이란 뜻의 용어다. 하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유지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2억9279만6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이 청년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4259만9000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기초연금 입법예고안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기대여명을 모두 반영한 수령액 추계 결과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서는 기초연금 정부안의 수령액이 물가상승률로만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됐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수령액이 임금상승률에 연동해 있지만 기초연금 정부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간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야, 새해 예산안 질타…대폭 '손질' 예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예산심사를 주도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이 날 선 지적을 가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 때 대폭 '손질'을 예고한 셈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국가부채가 5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공약가계부를 이행하려면 130조원 가량이 필요한데 정부의 총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줄이는 게 적정한지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대단히 긴축적이고 보수적"이라며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이어 "입으로는 경제를 외치면서 민생경제보다는 권력기관 운용에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면서 "특히 대통령의 개인 관심사나 어젠다(의제)를 따라가는 예산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급매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 높은 가격에 !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주월동 대지 2,000㎡, 건물 2,020㎡. (수익률 10%) 대출 16억5천포함. 매매가 38억.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신창동 대지 488㎡, 건물 966㎡ 매매가 15억 (공실없음)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토지 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매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타,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접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급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원룸전문(전대1분)

★전대 상대 농대1분★
◦ 룸11개(1층 상가) ◦ 월수익 420만, 준공완료
◦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융 1억2천)

★전대 정문 1분★
◦ 룸18개(만실) ◦ 월수익 600만
◦ 매가 6억9천(보증금 2억, 융 1억2천)

★전대상대2분 용봉지구★
◦ 룸19개(1층 상가, 주택1개)
◦ 월수익 850만 ◦ 매가 12억(융 4억)

★화정동 APT 입구 코너★
◦ 1층 상가, 2층상가, 3층 룸 9개, 4층 룸9개
◦ 월수익 1300만 보3억 ◦ 매가 19억

★남구 백운동 ★
◦ 룸15개(주택1개) ◦ 매가 8억8천

★전대정문 1분 ★
◦ 룸15개 (만실) ◦ 매가 6억3천
(보증금 4천 월510, 융 1억2천)

신한공인중개사
H.P. 010-6670-9800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환상의 섬

단독(해남군소재)

평 수 약 2000평 계획관리

차량진입, 가로등, 선착장, 방파제 설치됨

100%개발가능
(주택, 펜션, 기타 등)
주변 별장, 단독주택, 민가, 펜션있음

매 가
평당 30만원
(협상가능)

◎주 인 직 매◎
010-9247-9240

공장매매

전남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토 지 : 4,864㎡
공 장 : 375㎡
사무동 : 161㎡
기계장치일체

용도 특수시멘트(몰탈등) 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평2농공단지 (2014년 6월입주가능)
토지분양가 평당 222천원

연락처 : 017-602-1948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투룸 14개를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융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